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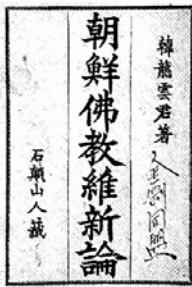
책으로 만난 부처님 세상 '환희심 절로'

불서로 돌아본 한국불교 100년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가장 잘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가 책이다. 따라서 책은 한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불서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한 시대의 불교 사상과 문화가

책이라는 형식으로 결집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20세기를 정리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는 지금, 지난 100년간 불교 사상과 문화의 뿌리를 이룬 대표적 불교서적 10권을 살펴본다.

조선불교유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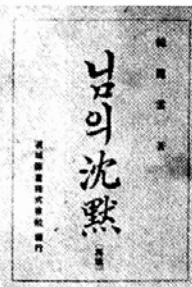


만해스님 지음
회동서관 펴냄
1913년 초판

지난 100여 년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저술은 만해 한용운스님(1879~1944)의 <조선불교유신론>이다. 조선불교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한 세기를 마감하는 지금까지도 민중불교의 대표적 저술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만해스님이 제시한 개혁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거시적 통찰력 때문이다. 그 예로 승려의 교육과 단결, 참선 강조, 사원주지 선거, 염불당 폐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오늘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탁견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불교부흥을 위한 만해스님의 유신론이 아직도 힘을 잃지 않은 까닭은, 단순히 승단의 병폐를 지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만해스님의 개혁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님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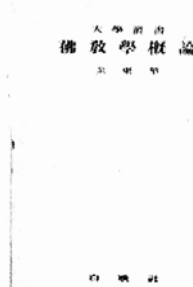


만해스님 지음
회동서관 펴냄
1926년 초판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은 신문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불교 문학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성과 중 하나이다. 학술논문은 물론, 300여 편이 넘는 연구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님의 침묵>이 없었다면, 우리는 반쪽의 문학사만을 지니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극찬할 정도로 문학사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님의 침묵>에는 표제적인 '님의 침묵'을 비롯해 '알 수 없어요' '나뭇배와 행인' 등 88편이 연작시 형태로 실려 있다. 이 시들은 모두 뛰어난 비유와 역설로 독창적인 시형식 개척, 한국 현대시의 한 지평을 연다. 근대 불교사에서 드물게 민족 문제에 민감했던 만해스님은, 암울한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편의 하나로 시작(詩作)에 몰두 했는데, 그 결과로서의 <님의 침묵>은 민족의 울분과 광복의 의지가 종교적 신념으로 승화된 절창으로 볼 수 있다.

불교학개론



김동화 지음
백영사 펴냄
1964년 초판

뇌허 김동화박사의 <불교학개론>은 최초로 불교학의 전반을 다룬 개론서이다. 현대 불교학 연구의 모태인 셈이다. 당시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책을 읽지 않고 불교를 논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불교학 연구에 미친 영향이 크다. 출간 이후 25년 여 동안 불교학계의 유일한 개론서였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불보·법보·승보편으로 나뉘어 부처님 생애부터 불교의 근원과 교리, 연기론, 실상론, 신앙론, 열반론, 수행론 등 불교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짜임새 있는 구성, 정연한 논리 전개, 탁월한 해설이 돋보이는 이 책은 각종 불교 개론서 출간의 디딤돌이기도 했다. 한가지 더 강조하자면 뇌허 김동화 박사의 영향력은 이 책만큼은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대적 불교학 연구방법론의 체계를 세운 대표적 학자라는 사실 또한 있어서 안과됐다.

신의 세계



고형곤 지음
태학사 펴냄
1971년 초판

고형곤 박사가 펴낸 <신의 세계>는 선종의 철학을 서양의 하이데거 철학과 비교하고 회통을 시도한 첫 연구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특히 존재와 사유의 본질을 밝히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동서 철학의 만남을 위한 연구는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21세기 인류의 정신적 대안이 선(禪)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돋보인다.

저자는 <신의 세계> 출간 이후에도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여 '후사'와 '백파' '화엄신론 연구' '신화' 등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들을 덧붙여 <서양철학과 선>, <한국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95년 증보판 형식으로 운주사에서 펴냈다.

영혼의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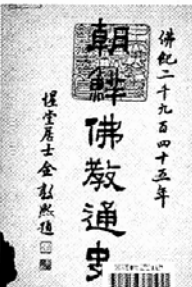


법정스님 지음
샘터 펴냄
1972년 초판

<영혼의 모음>은 법정스님의 대표적 수상집으로 간결하고 쉬운 문체에 날카로운 비평적 시각을 곁들여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책이다. 10월 유신으로 언론과 집회 결사 등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해야 했던 시절, 대사회적 비판으로 시대에 항거한 수행자의 울분은 면모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스님은 생명사상을 일반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때문에 수행자의 본분사에 대한 내용보다 대사회적 내용이 더 두드러진다. 또한 이 책이 스님의 다른 책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은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이다. <영혼의 모음>뿐 아니라 <산에는 꽃이 피네> <무소유> 등을 통해 보여준 스님의 사회적 영향력은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조선불교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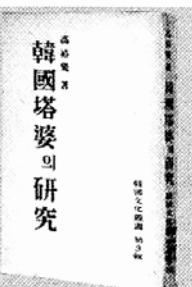


이능화 지음
신문관 펴냄
1918년 초판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관으로 일했던 이능화씨가 쓴 <조선불교통사>는 최초의 한국불교통사이다. 3권 2책, 총 2천3

백 여쪽에 이르는 이 방대한 전적은 한국불교 연구자들에게는 사료적 가치를 넘어 '한국불교사전'으로 통할 정도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은 한반도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이조불교> <조선선교사>도 이 책을 저본으로 할 만큼 일본불교에 미친 영향도 크다. 일본학자 나가구스 준지로(高橋順次郎)는 이 책을 보고 "조선에도 이런 박식한 학자가 있느냐"고 극찬했다고 한다. 상권 '불교시처(佛敎時處)'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역사를, 중권 '삼보원류(三寶源流)'는 불타입멸 후 결집과 경론의 번역, 인도·중국·한국의 종파 생성과 전승, 고승들의 행장을 서술하고 있다. 하권 '이백품제(二百品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설화 등을 망라하여 자상한 해설을 붙여 놓았다.

조선탑파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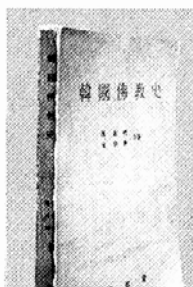


고유섭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
1948년 초판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고유섭박사가 쓴 <조선탑파의 연구>는 최초의 탑파 연구서이다. 하지만 이 책의 권위는 '최초'라

는 말에 기대지 않는다. 탑파의 계통, 양식 등의 연구에 있어 아직까지 관련 학자들이 필독서로 활용할 만큼 불교미술사 연구 성과물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삼국말기 탑파부터 통일신라기에 들어서 전국에 보급된 고대 석탑들이다. 그러나 중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백제의 석탑, 한국석탑의 산실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의 고찰에서 일본학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석탑을 주제로 삼고 있으나 환룡사 구층탑 같은 목탑, 그리고 소수이지만 경북 안동 등에서 유방한 전탑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36년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전국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며 쓴 논문을 그의 제자 황수영 박사가 펴낸 것이다.

한국불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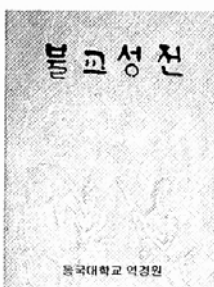


김영태의 지음
진수당 펴냄
1968년 초판

우리나라 불교사를 정리한 책으로는 권상로박사가 1917년 펴낸 <조선불교약사>와 대은스님의 <조선불교사 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개론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한문이나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못했다. 이와 달리 한국불교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국불교사 연구의 새장을 연 첫 개론서는 김영태·우정상교수가 쓴 <한국불교사>이다.

한국불교사를 총정리한 이 책은,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독서였다. 불교 제 영역의 발달사와 변천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하지만 이 책을 제외하고는 내용을만한 마땅한 저서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본학자가 내놓은 <한국불교사>가 명저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한국불교사 연구 부재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회
동대 역경원 펴냄
1972년 초판

동국대 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성전>은 성전 대중화의 효시로 꼽힌다. 팔만대장경을 한 권으로 읽기 쉽게 정리한 <불교성전>은 지금도 매년 1만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애독자들이 많다. 또 이 책의 가치중 하나는 대중화된 불교성전의 모본(母本)이라는 점이다. 시판되고 있는 20여 종의 성전들이 <불교성전> 이후 출간됐으며, 대부분 이 성전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 분류학인도 주목할 만 하다. 생활과 관련된 진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색인을 해 놓았다는 점이다.

<불교성전>은 대중정리란 울창한 숲에서 따놓은 몇 개의 잎사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잎사귀는 20여 년동안 불자들의 입문서로서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는 출간에 앞서 교계 각 분야 석학들의 편찬회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읽히는 문장이 되도록 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만다라



김성동 지음
한국문화사 펴냄
1978년 초판

김성동씨의 소설 <만다라>는 현대불교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자칫하면 소재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없는 민감한 소재를 문

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해 종단의 눈총을 사기도 했던 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도 한 몫을 토포했다. <만다라>가 7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요인 중 하나는, '화두'라는 불가의 전통적 수행관문을 문학의 이름으로 풀고했다는 점이다. 화두를 풀기 위한 치열한 주인공의 집념과 속진에 뒤얽힌 현실이 빚어내는 절묘한 결합이 독자들을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이 책의 '열풍'은 연극과 영화로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불교소재의 문학 작품을 영화화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만다라>만큼 흥행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듯 <만다라>가 한국의 문화 예술계에 끼친 영향력은 전방위적이다.

2000년 맞이 축하 행사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본 행사는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1. '티벳 死者의 춤(Bardo)' 오디오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1시간 30분 테이프 2개): 정가 28,000원 → 18,000원

총 3시간

바르도에 대한 오소의 강의 테이프(5,000원, 90분)와 함께 동시주문 대우 합니다.

바르도는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하며, '중음기(中陰期)' 혹은 '아스트랄(Astral)'이라고 한다. 이 바르도 명상은 바르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둘러 중으로써 바르도의 과정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명상법이다.

당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를 기초로 하여, 오소의 명상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소 삶과 죽음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ct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배경 음악: 치마(Chiray) / 번역: 최형식 / 목소리: 정두석

2. 2,000명에게 <오소 타임즈>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오소 타임즈 한국어판' 2호에서 7호 중에서 1권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 1호 - 제3의 눈(정민) / 2호 - 전생(前生) / 3호 - 최민 / 4호 - 오법과 명상 / 5호 - 관계, 유명한 20가지 오법 / 6호 - 아틀란티스의 비밀 뉴에이지와 명상 / 7호 - 티벳의 사제가 오고 있다! 삶은 환희이다! 유명한 사람들의 필자리

3.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2,000원을 맞아, 전화나 팩스, E-mail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2만 원 단위로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예: 20,000원 구입시 2,000원, 40,000원 구입시 4,000원...)

▶ 대상: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제작된 전 품목(바르도와 다이나믹)은 할인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바로 전화 주시면 상품 목록이 들어 있는 황금꽃 소식지 무료 보내 드립니다.

4. 2000년, 인도 <오소 명상 휴양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되는 책이나 테이프들을 전화나 팩스, E-mail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분들 중 매년 4명을 추천하여 인도 푸나에 있는 '오소 명상 휴양지'로 초대합니다. 추첨은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1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 1차 추첨일: 2000년 1월 17일(월), 오후 1시

5. 추첨을 위한 축제 밀레니엄 송년 파티

천 년의 마지막 토요일 밤을 함께 보낼 독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음악과 노래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 날짜: 1999년 12월 25일(토) / 오후 6시~10시
▶ 회비: 2만 원
▶ 미리 예약하십시오.

6. '새로운 2000년'을 예약하십시오

2,000년도 오소 다이나믹과 캘린더, 아름다운 오소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인도만 오소 타임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판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예약하십시오.

▶ 판매액: 4만 원

황금꽃의 책과 테이프들

거위는 밖에 있다	오소	12,000	본래의 얼굴 (90분)	6,000
깨달음으로 가는 열공 단계		12,500	침묵의 꽃들 ()	
누구도 죽지 않는다		12,000	명상법(명상을 직접 하는 데 사용되는 배경음악)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		9,000	다이나믹(力動的) 명상	13,000
오소 전(前) 타로(Tarot)		37,000	문달라니(문의 달링) 명상	
비의(秘)의 심리학		8,000	나타라(나타라) 명상	
제3의 눈을 찾아서	도입	12,000	나타라지(춤) 명상	
명상 음악(몸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편안한 음악)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50,000
사랑하는 이의 정령		13,000	다이나믹/문달라니 명상	6,000
비소의 연못			규리상카(대비비)기도 명상	
C 민영의 붓다들			나타라지(나타라) 명상	
D 자유를 즐기는 붓다			인달라(동심/활영(희정) 명상	
꿈미로 향기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신성무(神性無)			차크라 호흡 명상	
사랑하는 이의 정령	5,000		일곱 차크라를 위한 소리	
비소의 연못			황금꽃의 비밀	
D 안명의 붓다들			미스틱 로즈(꽃) 명상	
자유를 즐기는 붓다			무심(無心) 명상	
꿈미로 향기			저녁 사트사(Satsang) 1~7번	각 6,000
신성무(神性無)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28,000
소니 그림자			바르도에 대한 오소의 강의	5,000
더서 손가락			비파(비파 명상법(강의))	6,000
T 흐르는 강물에 Yes			특별 비디오 시리즈	
A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1 인도 오소 코요 인터내셔널	20,000
P 순간에서 순간			2 다이나믹 명상	14,000
E 웃고 있는 북들			3 피오르네 달	17,000
직관(直觀)			4 신성무(神性無) 공연 심화	20,000
새벽을 보다			5 신인류에 대한 선언	20,000
일편 청문			6 내 꿈을 대대에 맡기노라	16,000
내면의 붓다			7 아침 저녁 명상	20,000
구름 지켜보기			강의 비디오 시리즈	
피안(飛安)			오소의 선행법 강의 시리즈	
사랑은 초대이다			1-16번(각 1시간 20분)	각 20,000
빈전의 차, 심우(90분)	6,000		오소 타임즈 1년 구독료	10,000